

국내 두번째 긴 ‘여수~남해 해저터널’ 오는 12월 착공한다

총 사업비 6974억 원 투입...2031년 개통 목표

여수~남해 이동시간 90분→10분대로 크게 단축

영·호남을 최단 시간에 이어줄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해저터널이 연내 착공한다. **【관련기사 3편】**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 공사비 400억원이 우선 반영된 가운데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12월부터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 시행을 맡아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실시계획을 진행 중이다.

전남 여수시 신덕동에서 경남 남해군 서면을 육상과 해저로 연결하며 총연장 8.085km에 해저터널 구간은 5.76km다.

해저터널 구축과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데는 국비 6974억원이 투입된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수~남해 간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반(90분)에서 10분 대로 크게 단축된다.

전남·경남·부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 탄력을 비롯해 여수시, 남해군의 관광산업 등 다방면에서 시너지 효과 발생으로 양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4월18일 경남도청에서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을 위해 열린 전남도·경남도 간 협약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해안 양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남해안, 지리산 등의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은 이런 구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국내 해저터널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해저터널은 일제강점기 동양 최초로 건설된 통영 해저터널(1932년-461m)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어 국내 최초의 침매터널인 가덕도 해저터널(2010년-3.7km)이 준공됐고, 인천 북항 해저터널(2017년-5.46km), 보령해저터널(2021년-6.927km)이 뒤이어 건설됐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위치도. 이 해저터널은 전남 여수시 신덕동(왼쪽)에서 경남 남해군 서면을 육상과 해저로 연결하며 총연장은 8.085km에 해저터널 구간은 5.76km다. (이미지=DL이앤씨 제공)

이 중 가장 긴 것은 보령 해저터널이다. 두 번째는 인천 북항 해저터널이지만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준공되면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는 보령 해저터널과 같은 나뭇(NATM) 공법이 사용된다.

국내 대부분의 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공법으로 화약을 이용해 암반을 깨뜨린 후 콘크리트를 분사해 붙이고 지지대를 설치해 나아가며 터널을 구축하게 된다. 시공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여수=김현근 기자

대검, 살인예고글 “기소유에 최소화 정식재판” 엄정대응

검찰이 살인예고 사건에 대한 기소유에 처분을 최소화하고 정식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강력범죄)에 고 사건을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범행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여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대표축제

제23회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

상사화 꽃길 속으로,
 천년의 사랑 속으로



주요 프로그램

- 상사화 소원의 길
- 상사화 꽃길걷기
-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 상사화 달빛야(夜)행
- 퓨전국악버스킹 (15일, 16일, 22일, 23일) - 시간 : 오후 7시
- 상사화 대학가요제

초대가수



김연자, 황민우, 황민호
9월 15일 오후 6:30

■ 축제 입장료(8:00~18:00 입장객에 한함)

구분	요금	환급액 (영광사랑상품권)
일반	3,000	3,000
5세 미만(주민등록등본 제외), 영광군민(신분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해당 증 제시) 임산부(임신확인서 제시), 축제 관계자·초청인사	무료	-

* 환급된 영광사랑상품권은 축제장과 영광 전 지역에서 화폐처럼 사용 가능 (연매출이 30억원 이상인 일부 가맹점 제외)

2023. 9. 15.(금) ~ 9. 24.(일)

영광 불갑산 관광지 일원

주최/주관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중앙회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교사들이 손팻게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 “공교육 멈춤의 날, 적극 지지...탄압 말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사들이 교원 보호를 촉구하며 행동하기로 한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안타까운 선택으로 숨진 서울 서초 교사의 49재를 맞는 4일 교사·시민들이 애도하며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연가·병가를 사용해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교장 재량으로 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있다”면서 “반면 정부는 교사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까지 언론 인터뷰에

나서 교사들을 검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행동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부에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교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또 이점선 시 교육감도 이중적 행태를 중단하고 교사들의 행동을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사·시민의 존엄한 행동이다.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탄압이 아니다. 국가적 성장과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비기자

“동별로 4개까지만” 정당 현수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체 공해’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통과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정당 현수막은 각 행정동별로 최대 4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5·18을 비방 또는 폄훼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표시할

수 없도록 표시·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교통안전을 위해 지상 2m 이하로 정당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자 제도개선 차원에서 발의됐다.

다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변영일기자